

김 지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직접 확인

세계잼버리 영의 활동장 활용할 부안 직소천 정비 상황 점검 국제대회 성공 위해 6월 위기 전까지 철저한 사전준비 주문

김관영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여름철 재난 대비 추진 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에 나섰다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8월에 개최되는 만큼 잼버리 프로그램 이 진행될 인근 하천 정비사업 등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12일 부

안 직소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상황을 보고받은 뒤 빈틈없는 사전준비와 강도높은 대비태세 구축을 지시했다.

부안 직소천 지방하천정비공사는 군 특예산 등 도비 147억원을 포함해 총 2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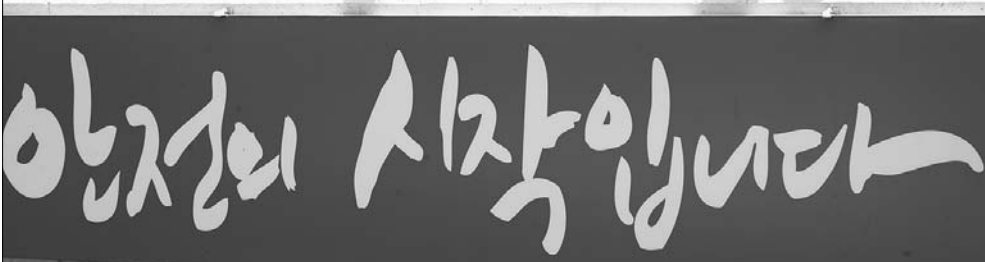
로, 3.28km의 제방정비와 홍수조절용 가동보 2개소, 교량 1개소 등 하천시설과, 수상레저체험장, 자연형 물놀이장 등 잼버리 영의 과정 활동장이 함께 조성 중이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지난 2020년 12월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를 완료한 뒤 2021년 5월 공사에 착수, 가동보와 호안정비를 완료했으며, 현재 교량과 제방도로포장, 잼버리 영의 과정활동장 조성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부안 부군수, 담당 실국장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8월 위기 이전까지 하천정비 주요공정과 잼버리 영의 과정 활동장 등 수방시설을 완료해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율려 김 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있다"며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배수펌프 등 수방시설에 대한 정비와 시험가동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철강화물 대피계획 수립 등 여름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최고의 국제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사전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12일 부안댐 하류 잼버리 카누체험 직소천 현장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행정을 갖고 있다.

/김재훈 기자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식 개최

도·전북지식재산센터, 신규 글로벌 IP 스타기업 8개사 지정 특허맵·브랜드 개발·디자인 융합 등 지식재산 종합 지원

전북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는 12일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전북도 관계자, 손용욱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신규지정 8개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북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은 IP 기반 해외진출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글로벌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 당 연간 7,0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기업의 요구에 맞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날 3월까지 온라인 접수로 통해 서류심사(IP스펙트럼 진단 등)와 현지실사, 대면평가 3단계의 세부 심사과정을 거쳐 지역특화 산업 등에 해당하는 다양한 업종의 8개 기업이 신규 지정돼 2021~2022년에 선정된 2~3년 차 20개 기업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1~3년차 글로벌 IP 스타기업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요구와 특성을 고려해 특허허용(상표 및 일반)·트랜스(신규

or 리뉴얼) 개발·디자인(제품 or 포장) 개발·트랜스·디자인 융합·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연구과제 35건과 해외권리화(특허, 상표, 디자인)에 83건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전북의 글로벌 IP 스타기업들은 지식재산 IP 경영 활성화 및 해외 시장경쟁력을 제고했다. 특히, 작년 글로벌 IP 스타기업에 신규 선정된 환풍기 제조업체 D7기업은 2021년 대비 매출액이 286억원에서 325억원으로 증가, 수출액은 5.1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 고용은 69명에서 75명으로 증가하는 등 그간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을 통해 성과를 냈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 확보를 통한 IP경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전북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적극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관련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 스마트팜 등 방문해 농심 살펴

진안 마이산김치공장·다원영농법인 찾아... "청년농 육성·스마트팜 확산이 핵심" 강조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2일 진안군 한국농협김치조합공공사업법인 전북지사(이하 마이산김치공장)와 동향면에 위치한 토마토 생산 스마트팜(다원영농법인)을 방문해 농협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김 부지사는 마이산 김치공장의 생산·가공 시설을 시찰하고 농식품 수출실적과 운영보고를 청취했다. 진안 마이산김치공장은 배추·고추 등 주요 원료를 현지 농업인과 계약 재배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해왔으며, '마이산 김치'를 브랜드로 20여종의 전라도 김치를 출시해 지난해 매출액 98억 원을 달성했다.

이어서 방문한 진안군 동향면에 소재한 1.2ha(3,800여평) 규모의 유리온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2일 진안군 동향면에 위치한 토마토 생산 스마트팜(다원영농법인)을 방문해 농협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실 스마트팜(다원영농법인, 대표 성대근)은 고품질의 특성을 살린 여름에도 토마토를 생산하는 경쟁력을 갖춘

농업법인체이다. 이곳에서 김 부지사는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과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해 도입한 지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시찰하고 스마트팜 관계자로부터 지난해부터 자켓값과 난방비 인상에 따른 경영여로를 청취했다.

김 부지사는 다원영농법인 관계자에게 "전북도의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의 핵심은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이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스마트팜 경영체가 스마트팜 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길라잡이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부지사는 "과거의 동부권 지역은 협소한 농지면적과 고령농 증가로 청년농 유입이 어려운 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고품질 특성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 등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며, "도와 동부권 시군이 청년농 유입 확산을 위한 특화작목 육성사업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도, 관광 콘텐츠 확장 '박차'

관광·농림 부서 직원 대상 업무연찬·안은금주 대표 특강

전북의 대표 먹거리·농촌자원 활용 관광상품화 추진

전북도가 민선8기 미래성장 전략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을 내세운 가운데 관광 콘텐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관광 제도약과 미식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 문화관광과, 농업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과 업무연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 3월 김관영 도지사가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내 관광 콘텐츠 확장 방안으로 미식 및 농촌관광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과 및 간부를 비롯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식 및 농촌관광 전문가로 활동하는 (주)비팜 컴퓨터 안은금주 대표가 '전북 로컬 관광의 경쟁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은금주 대표는 강연에서 △농산 어촌이 지속가능한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 △건강한 식문화 △농업의 발전을 강조했다.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전북도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 건강·치유, 수학여행 등과 연계해 관광 콘텐츠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희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하세요"

도, 17일부터 최대 2천만원·최장 10년 무이자 용자 지원 신청

전북도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급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희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희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오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개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희부부는 임대보증금 2천만 원 무이자 용자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영구·국인·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도내 시·군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혼인신 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희부부다.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용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에 6년까지, 자녀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에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희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관할 시·군에 방문

해 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중액계약 또는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른바 5월 중순부터 지원하게 되며, 이번 1차 지원은 총 625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모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13일 게시 예정인 전북도 및

시·군 누리집상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063-280-2368)이나 공공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 등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됐으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희부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희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앞으로도 누구나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잼버리 일일방문객 입장권 판매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판매처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한창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국회의원 김윤덕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강태선 이하 조직위원회)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일일방문객 프로그램 입장권을 1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일일방문객 프로그램은 잼버리장 일부 구역(새만금델타)을 잼버리에 참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여, 스카우트 전시관, 반기문 SDG마루, 종교관 등의 스카우트 전시 및 체험관과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음식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푸드하우스, 노래, 댄스, 국악 등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일일방문객 프로그램 입장권은 온라인 판매처인 티켓링크의 웹사이트(<http://www.ticketlink.co.kr/home>)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매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온라인 예매 시 현장 구매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인 만 14세 이상 1만3,000원, 만 7~13세 9,000원, 만 6세 이하 무료이며, 조기예매 할인 기간(13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입장권을 예매하는 경우 30%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만 14세 이상 1만4,000원, 만 7~13세 7,000원으로 일일방문객 프로그램에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전북도민의 경우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일 6,000명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예매자들도 행사 기간에 운영되는 현장 매표소를 통해 입장권을 발급받은 후에 입장할 수 있으며, 보훈 대상과 유족 장애인 만 65세 이상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행사 당일 현장 구매를 통해 할인 입장이 가능하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직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티켓판매 사이트인 티켓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조직위 마케팅팀 (wsj-day-visit@scout.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행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잼버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일일방문객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구성했다"라고 밝히며, "세계잼버리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으나 많은 분이 잼버리장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영농철 본격... 농촌인력계획·우수사례 공유

전북도, 농촌인력 수급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전북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14개 시군과 농촌인력증강센터 38개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농반기 농촌인력수급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전북도의 농촌인력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각 시군의 농촌인력 지원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형제결근로 및 농촌인력증강센터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농반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

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는 주요 품목 연간 인력수요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인력필요 집중시기인 농반기이고, 올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농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인력증강센터를 활용한 국내인력 공급 확대와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지원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에 공공분야에서 농촌인력증강센터

를 작년 32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대학생, 농협 등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시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재 보험료, 관리자인건비,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비, 성실 외국인근로자 출국항공료 등에 예산 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